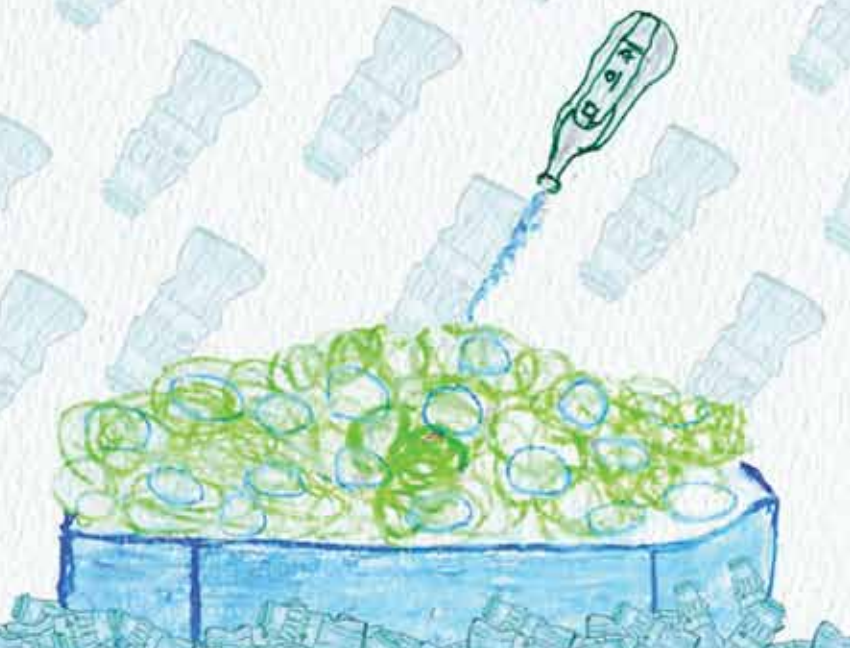


달콤한 목욕

A Sweet Bath



달콤한 목욕

A Sweet Bath





올 여름 가장 더운 어느 날 가뭄 때문에
마을 전체에 물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양동이를 들고 나와 필요한 만큼
물을 받아갔습니다.

It was the hottest day of the year. All of the water dried because of the drought.
When it became like this, all the people off the town carried a bucket to get
water, except for these three people.

여기 세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공놀이만 했습니다.



The three people had no idea and just play soccer.



하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찜다 찜”

“우리 찬물로 목욕할래?”

“그래 여름엔 찬물 목욕이 최고지!”

However the sunlight was too hot for the three people.

“Phew! It’s too hot!”

“Shall we take a bath?”

“That sounds good!”

“Sure! Bath is the best thing to do in summer!”

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The three men went to the bath tub which is the biggest in their town. Unfortunately, the water didn't come out even though they turn the water faucet.
“Oh my god! What shall we do?”



그때 밖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봐! 냉장고에 시원한 게 있어.”
바로 ‘사이다’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이다가
냉장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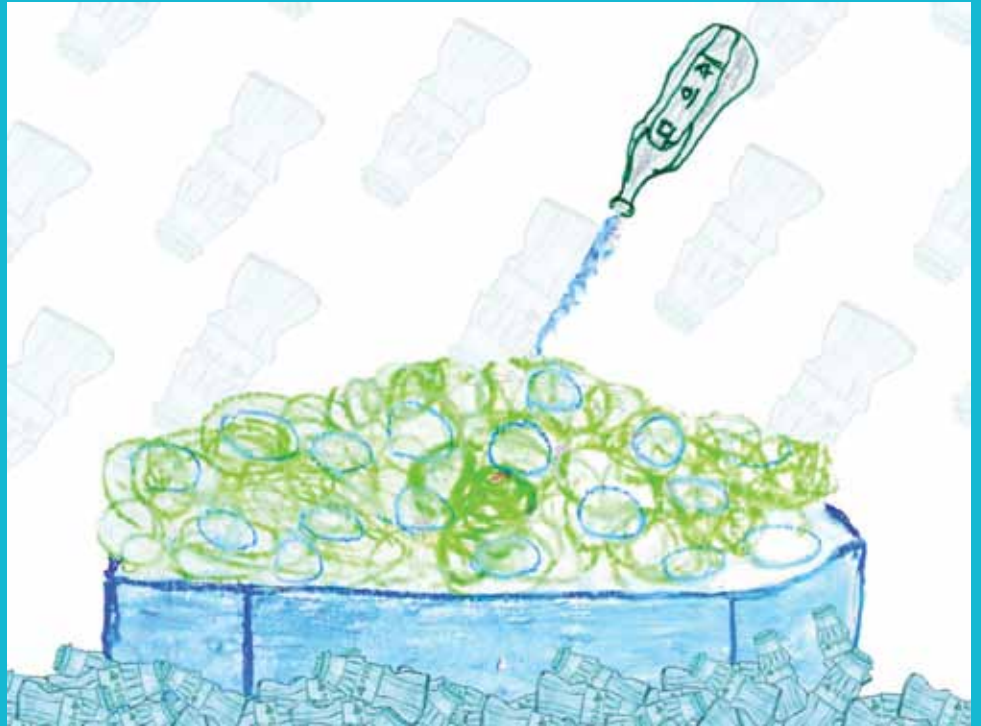
Then, a person shouted from outside.
“Come here! There is a cool drink in the refrigerator.”
It was cider. Very many ciders was in the refrigerator.
It was cool as much as an ice.

콰콰콰콰

세 사람은 사이타를 모두 꺼내서

큰 욕조에 콰콰부었습니다.

컵에 따를 때처럼 흰 거품이 보글보글
피어 올랐습니다.



Gurgle~ Gurgle~

The three people poured all of the cider in to the bathtub. There were bubbles just like when we pour it in the cup.

Splash!!

Cider bath was very cool. Just like the cider popping in our mouth, all of the body was tingling.

퐁당!

사이다 목욕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입 안에서 사이다가 툭툭 튀는 것처럼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거품이 제일 신기했습니다.

손발로 휘휘 저으면 거품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거품을 떠서 온 몸을 씻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The foam was the most amazing. When we swayed our hand, the foam billowed. We washed our hair and body. It felt good.

컵을 가져다가
사이다를 떠서 마셨습니다.
조금 짭짤하지만 아주 시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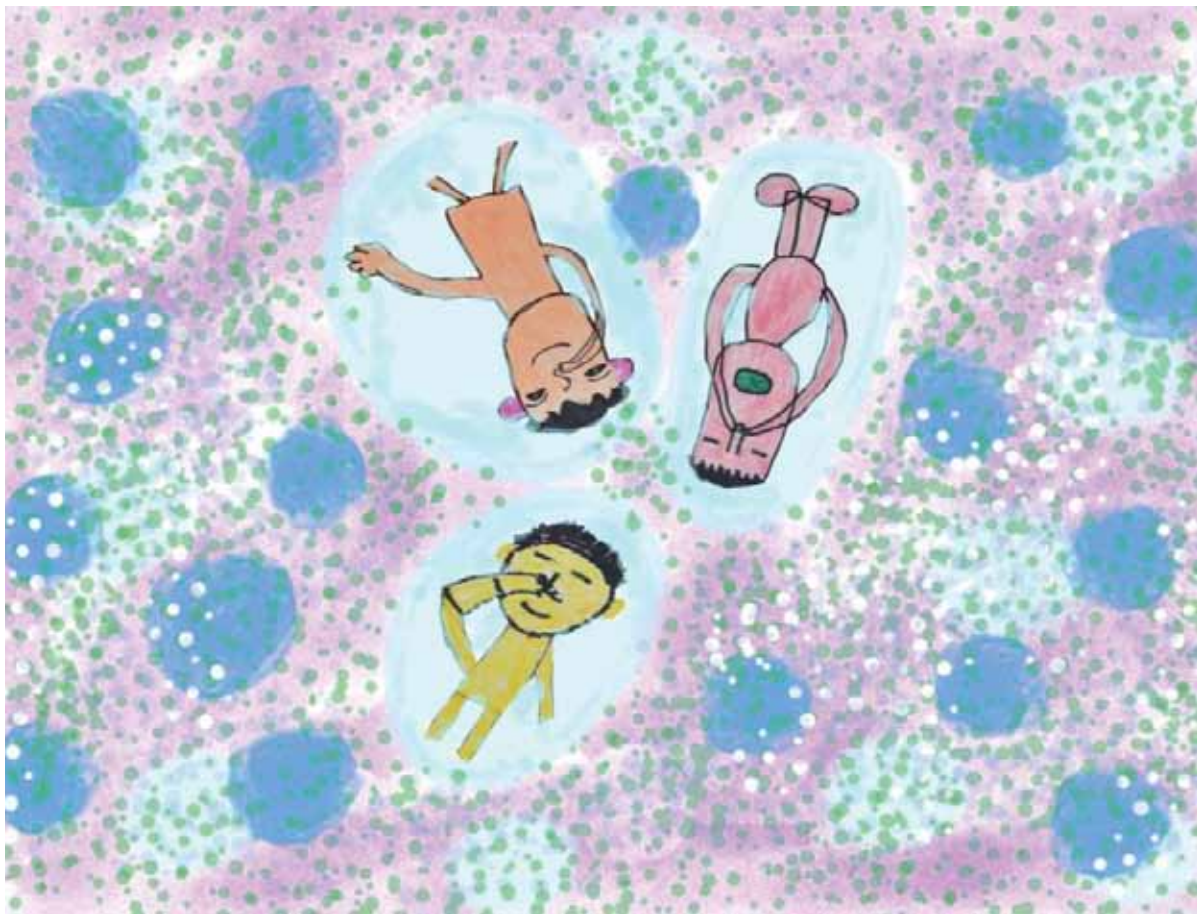


We drank it, too. Even though it was little salty, it was cool.

We raced who can stay underwater longer.
When I opened my eye, I saw big bubbles.

목욕탕에서 항상 하는 잠수 시험도 했습니다.
숨을 참다가 눈을 떠보니
큰 사이다 거품이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목욕 중에
가장 시원하고,
신기하고,
맛있는 목욕이었습니다.

It was the most cool, yummy, and amazing bath.



즐거운 목욕을 마친 세 사람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사이다가 남아서 몸이 끈적끈적 했습니다.

“으악 끈적 거려 도저히 못 참겠어!”

After the fun bath, the three people dried them with a towel. However, even though they dried themselves, it was sticky because of the cider.
“It’s too sticky!!! I can’t bear it!”

The person who most hated the sticky thing dived to the pool. However, he crashed to the floor because there was no water.

끈적임을 가장 못 참은 사람은
야외수영장으로 뛰어 가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퐁' 찧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두루마리 휴지로
몸을 닦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라처럼 돼서 친구들이
놀라도망갔습니다.

Another person rolled tissue around himself. His friends ran away because they thought he was a mummy.

끝까지 버틴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깐 잠든 사이에

동네 개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들은 달콤한 사이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Can you guess what happened to the last person? He got loved by the dogs while he was asleep. The dogs loved the sweet cider.

해가 남은 사이다를 마시고...



The sun drank the left cider...

그날 밤
긴 가뭄을 보내는
비가 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And a rain that sent the long drought came that night.
It was cool.

The End

이 동화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홀트타운의 장애인들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고양시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펴낸이*신일현

펴낸곳*홀트일산복지타운 www.holttown.or.kr

기획*이창신

진행*김태환, 김용숙, 박정숙, 정승구

저자*김신화, 김영애, 김현균, 박경덕, 박순열, 양준혁

번역*최재석

디자인*정혜선

편집*텍스트북?



Copyright © 2018 by Creative Commons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